“줌머족 인권보호 위한 삶 목숨까지 위협”

난민 불인정 결정 통보 받은 라트나 재한줌머인연대 회장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한국에서 줌머족 인권탄압을 반대하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저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위험해져요. 한국정부가 저를 외면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재한줌머인연대 회장 라트나 차크마씨<사진>는 최근 서울출입국 · 외국인청으로부터 난민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받고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방글라데시 치타공 산악지대 출신의 줌머족이다. 줌머족은 방글라데시 소수민족으로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방글라데시 내에서 숱한 인권탄압 및 박해로 고통받아 왔다. 이를 피해 해외로 도피한 난민들이 세계 각국에서 줌머족 인권을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재한줌머인연대도 그 중 하나다. 줌머족이 탄압받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불교를 믿기 때문이다. 힌두교인이 대다수인 방글라데시에서 줌머족은 전통종교인 불교에 대한 신앙을 이어왔다. 상당수 난민들이 스리랑카와 태국, 한국 등 불교국가에 분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한줌머인연대는 불교를 믿는 줌머인 모임이라는 점에서 한국 불교계와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지만, 그 본질은 정치조직이다. 본국 내 줌머족 인권탄압 중지를 촉구하는 등의 정치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라트나 회장의 난민신청 탈락이 곧 신변 위협과도 직결되는 이유다.

서울출입국 · 외국인청은 난민불인정의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줌머인연대 측은 “재한줌머인연대 회장으로 활동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라트나 회장은 줌머인연대 회장 소임을 맡기 전부터 주한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인권탄압 중지’ ‘치타공산악지대 자치권 보장’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에 참가해 왔다. 2018년 회장직을 맡은 이후에는 줌머족이 처한 상황을 알리고 국제적 연대를 호소하는 집회도 수차례 개최했다.



라트나 회장이 치타공산악지대를 떠난 것은 불과 14세 무렵이다. 다른 줌머인들과 다른 점은 본국을 떠난 그가 스리랑카에서 출가한 뒤 스님 신분으로 태국 등지를 떠돌다 한국으로 왔다는 점이다. 그는 “처음 한국에 온 것이 2008년 무렵이었고 그때는 스님 신분이었다”며 “이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한달 가량 머물렀는데 집에 수시로 군인들이 찾아오는 등 심각한 감시와 위협을 겪은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비록 한달이지만 그때 겪은 두려움과 공포는 잊혀질 수 없는 현실이었다. “다시는 치타공산악지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 정착을 위해 승복을 벗었다. 생계부터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재가자 신분으로 돌아가 천막기술과 용접을 배워 공장에서 일했다. 부모님과 여동생 등 가족이 있기에 본국의 줌머족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도 멈출 수 없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재한줌머인연대 소속으로 현지 줌머족의 위험 상황과 사건 사고, 정치지형의 변화 등을 체크하고 연구했다. 치타공산악지대에서 벌어지는 사태들에 대한 인권보고서와 현지 언론보도를 검토하고 전세계 줌머난민과 이주자들과 소통하며 정보를 교환했다. 줌머인연대 측이 라트나 회장의 귀국시 구속, 살해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유다.

라트나 회장은 6월 23일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접수했다. 동시에 그를 지키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들의 난민인정 탄원운동이 진행 중이다. 그가 속해 있는 재한 이주민법당 연합체인 다문화불교연합회도 6월 24일 평택 마하위하라사원(스리랑카, 주지 담마끼띠)에서 열린 회의에서 라트나 회장을 위한 탄원서에 서명하며 마음을 보탰다.

라트나 회장은 “저를 위해 나서주신 각국 스님들은 물론, 한국 불자들과 전세계 줌머연대에 감사드린다”며 “부디 난민지위가 인정돼 제2의 고향 한국에서 줌머인들을 위해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간절함을 전했다.

줌머족은?

좀머족은 방글라데시 동남부에 위치한 치타공산악지대의 선주민으로, 11개 민족으로 구성돼 있다. 방글라데시 영토이지만 국민 다수를 차지하는 뱅갈족과는 인종과 언어, 종교 등 모든 문화가 다르며, 특히 줌머족 대부분이 불교신자다. 방글라데시는 줌머족의 문화와 자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줌머족에 대한 살해, 폭행, 납치 등 박해를 자행하고 있으며, 이를 피해 전세계로 도피한 줌머족들을 중심으로 인권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투쟁이 진행 중이다. 김포에 터를 두고 있는 재한줌머인연대는 상당수가 탄압을 피해 한국으로 온 난민(98명) 및 난민신청자다.



거리에서 줌머족 상황을 전하는 라트나 씨.



‘간화선 중흥’ 대작불사 관심을

간화선 세계화와 선풍 진작을 위한 재가불자 모임이 탄생했다. 전국선원수좌회 산하 재단법인 선원수좌문화복지회(대표이사 의정)는 7월 4일 양평 용문사에서 후원조직 선주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모인 300여 재가불자들은 현재 후원회원으로 구성된 3000여 불자들의 구심점 역할을 자임했다. 이들은 전국선원의 수좌 스님들의 후원 뿐만 아니라 한국 선 전래 1200년을 맞아 간화선 세계화를 위한 2차 불사에 돌입하는 문경세계명상마을 불사에도 진력할 계획이다.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도 맡고 있는 의정스님은 이날 법문을 통해 “간화선 중흥은 불교 중흥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촉발된 인류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 중심이 될 문경세계명상마을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양평 용문사=노덕현 기자

“POST코로나, 불교 죽음교육으로 대비”

이범수 동국대 교수, 한국종교교육학회서 강조

“코로나 사태의 진정한 극복은 심층생태주의로 인간을 초월한 공동체 구성에 있다. 많은 이들의 죽음에 대한 불안을 없애기 위해 영성이라는 새로운 다리를 놓아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불안과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종교가 지닌 영성을 활용한 인류 초월 생태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범수 동국대 생사의례학과 교수<사진>는 7월 10일 한국종교교육학회가 청호불교문화원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 ‘죽음과 삶, 종교와 교육을 통해 만나다’에서 코로나 시대 진정한 죽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교수는 “죽음교육은 코로나 19의 위기를 사는 중차대한 시기, 우리들에게 삶의 이정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위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죽음에 대한 사유를 하게 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이런 교육을 통해 전인적 인간의 중요성을 모두 인지하고 환경과 생태에 대한 수평적 사고까지 이어져 진정한 코로나 극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구체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죽음교육으로 생태계 순환을 새롭게 인식하는 생태영성교육, 모든 생명의 평화와 조화를 이끄는 생명존중교육과 채식 실천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죽음에 쫓겨 사는 것이 아닌 삶과 죽음에 대한 사유를 통해 죽음의 본질을 직시하고 죽음을 넘어 가치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종교인들이 도움을 줘야 한다”며 “지구와 관련된 생태윤리를 영적 수련과 결합하여 말의 차원이 아닌 행동과 운동으로 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임병식 한국싸나톨로직학회장의 기조강연 ‘우리가 죽음과 함께 산다는 것은’ 부터 장정태 삼국유사연구원의 ‘한국 민속종교에 나타난 죽음인식’, 문선영 선문대 교수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죽음이해와 교육적 함의’, 전한성 인천대 교수의 ‘현행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나타난 죽음교육 양상 고찰’ 발표가 이어졌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강형철 교수 · 함께하는마음재단, ‘불이상’ 수상

제35회 불이상(不二賞) 수상자 발표

불이회는 7월 7일 연구분야 수상자로 강형철 동국대 초빙연구교수, 실천분야 수상단체로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마음재단(대표 지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연구분야 수상자인 강형철 교수는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2010년 은정학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불이회는 “범어 원전과 문헌학에 대한 견실한 훈련을 바탕으로 독자적 사고를 하면서 외국어 실력을 두루 겸비한 소장학자”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4차 산업과 불교를 접목한 학제적 연구 등 불교학 연구 영역을 확대하는 등 연구방법론 개척을 시도했다”면서 “앞으로 한국불교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사진 왼쪽부터 강형철 교수, 함께하는 마음재단 홈페이지.

실천분야 수상단체인 함께하는마음재단은 1990년부터 후원회를 시작으로 1997년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했다. 대표지도 스님을 중심으로 노인, 지역, 자활복지 등 23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불이회는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신행실천을 순환시키고 특히 불자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불교사회복지의 대중화에 있어 선구적 역할을 하는 단체”라면서 “자비행을 통한 지속적인 사회 기여활동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연구원 채용 공고

대행선연구원에서는 불교학 및 대행선의 연구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 자 격 불교학 또는 선학 관련의 전공자로서 박사학위소지자.
* 제출서류 1) 석·박사학위증 사본 1부 2) 이력·경력서(사진 첨부, 본인 사인) 1부
3) 관심분야 연구계획서 1부
* 채용인원 0 명
* 서류제출기한 7월 25일까지
* 면접일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통고
* 근무조건 주 3일 (매주 일요일을 포함한 그 외 2일의 주 3일, 1일 8시간 근무)
* 주 업 무 1) 연 1회 학술대회, 연 4회 계절 발표회 준비
2) 연 2회 『한마음연구』 논문집 발간 업무 : 논문교정 등
3) 기타 연구원 업무 동참
4) 연 1편의 논문 발표
*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최종 결정함
* 월급여액 내부규정에 의함

※ 제출 e-mail : ds7788@hanmaum.org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한마음선원 내 대행선연구원
※ 전화번호 : 대행선연구원 031) 470-3276, 3277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풍요와 복덕을 얻게하는 귀한 선물

천수경(千手經) 액자

인쇄물이 아니라 한 자 한 자 정성을 들여 모필로 써서 만든 것입니다.
붉은 비단에 금색원형으로 천수경을 적어 조형미와 더불어 품격까지 느껴져
주지스님 방이나 거실, 사무실 벽에 걸어놓기에 안성맞춤입니다.



· 작품크기 : 가로 45cm × 세로 45cm
· 바닥재질 : 비단(한지로 배접)
· 구입대상 : 스님, 신도님

천수경이란

천수경(千手經)은 관세음보살의 6번화신 중 하나인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을 신앙하는 경전이다. 천수다라니는 특히 티벳과, 네팔, 인도, 파키스탄은 물론 중국에 걸쳐 여러가지 이본(異本)들이 있는데 그 체제와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다라니의 내용도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송되고 있는 천수경은 가범달마(伽梵達摩)역의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경)을 모태로 한 것인데 우리말로 풀어쓰면 한량없는 손과 눈을 가지신 관세음보살님의 넓고 크고 걸림없는 대자비심을 간직한 큰 다라니경인데 천수다라니를 정성드려 모시거나 수지 독송하고 지키면 시방세계의 모든 불보살이 와서 증명하여 일체업장이 소멸되고 일체 악업과 중죄와 모든 장애를 여의케하며 일체의 청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 증장시키고 이롭고 안락하게 하며 모든 병과 두려움을 없애주고 일체의 귀신이 범접치 못하게 하고 모든일을 성취케하며 구하는 바를 만족케하고 특히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수명이 장수하고 풍요와 복덕을 얻게한다고 한다. 이와같이 천수다라니에는 온갖 공덕이 들어있어 그 대비신력과 위신력의 영험은 한없이 높고 그 신묘함은 불가사의하다고 하여 신묘장구 대다라니라 한다.

문의 055-291-7263, 010-3845-2446 (금액협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00번길 37-15호 도덕정사